

WBC 한국 운명, 호주전에 달렸다... '압도적 승리'가 관건

이강철 감독 "호주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호주전 패하거나 힘든 승리시 일본전에 지장
B조 1위 차지해야 A조 최강 쿠바 피할 수 있어

제5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의 성적은 호주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을 이끄는 이강철 감독은 지난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흘 동안 호주프로야구의 전력을 분석한 이강철 감독은 그들의 만만치 않은 전력을 확인했다.

이 감독은 호주 리그의 수준은 분명 KBO리그보다 낮지만, 상위 레벨의 선수들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타석에서 섬세한 야구를 하는 호주 타자들, 시속 150km를 던지는 투수를 보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WBC 3, 4회 대회에서 1라운드에 탈락한 한국은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힘든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오는 3월9일 도쿄돔에서 호주와 1라운드 첫 대결을 벌인다.

이 감독은 좋은 투수를 모두 투입해서라도 호주전을 무조건 잡는다는 계획이다. 호주전에서는 승리뿐만 아니라 투수를 아낄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한국은 3월9일 호주전, 10일 일본전, 12, 13일 체코, 중국과 차례로 대결한다. 한국은 B조 1위 또는 2위로 8강에 올라 4강 진출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B조 최강 전력은 일본이다. 일본은 오타니 쇼헤이, 다르빗수 유, 스즈키 세이야 등 메이저

리그(MLB) 선수들과 일본프로야구의 최정상급 선수들을 앞세워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은 역대 WBC에서 일본을 상대로 4승 4패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인 전력상 한 수 아래인 건 분명하다.

일본과 좋은 승부를 펼치려면, 호주전에서 최대한 좋은 투수를 아끼고 승리해야 가능하다.

이 감독은 "호주전에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 위주로 내보낼 것이다. 결론은 치는 것이 중요하다. 2, 3점차 싸움이라 생각한다면 3점 이상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타선이 일찌감치 터져주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야구 특성상 생소한 투수를 상대로 좋은 타격을 하긴 어렵다. 빨리 약점을 간파하고 공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일전도 중요하다.

일본전이 호주전 만큼 중요한 이유는 A조 최강 전력 쿠바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다. 한국이 조 2위를 차지할 경우, 쿠바와 4강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4강행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이 감독은 "호주전을 승리한다면 일본전에서 재미있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바 외에 A조의 다른 팀들도 까다롭긴 마

찬가지다. A조에는 쿠바와 함께 대만, 네덜란드, 이탈리아, 파나마가 포진돼 있다. 대만은 국제대회에서 한국을 수 차례 괴롭힌 전력이 있고, 네덜란드는 3, 4회 WBC에서 한국에 일격을 가한 바 있다.

치솟는 몸값... '월드컵 스타' 조규성, 어디로 갈까

스코틀랜드 셀틱, 조규성에 이적료 45억 제안...마인츠와 영입 경쟁서 앞서



유럽 진출을 추진 중인 축구 국가대표 골잡이 조규성(25·전북)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월드컵 이후 한껏 주가가 치솟고 있는 조규성의 다음 소속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8일(한국시간) "셀틱(스코틀랜드)이 한국 스트라이커 조규성을 영입하기 위해 300만 파운드(약 45억원)의 이적료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마인츠(독일)도 비슷한 수준의 제안을 했지만, 이적료를 더 올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럽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조규성의 영입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구단은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으로 보인다.

볼과 이를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 7일 영국 이브닝스탠다드는 조규성이 셀틱 대신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로 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인츠는 프로축구 전북 현대 출신인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이 뛰는 팀으로 국내 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과거엔 구자철(제주),

지동원(서울), 박주호(수원FC)가 활약한 바 있다.

마인츠는 전북에 조규성 이적료로 250만 파운드(약 38억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인츠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마인츠의 조규성 영입 보도가 나온 이튿날 독일 축구전문지 키커는 "마인츠가 자금과 관련된 조건을 조사한 뒤 조규성에 관한 관심이 식었다"고 전했다.

이후 셀틱이 조규성의 몸값을 더 올리면서 월드컵 스타의 차기 행선지는 독일에서 스코틀랜드로 옮겨지는 분위기다.

셀틱은 조규성이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친 뒤 꾸준히 관심을 보여 왔다.

여기에 셀틱에서 뛰는 일본 공격수 마에다 다이젠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우샘프턴 이적설도 변수로 떠올랐다.

스카이스포츠는 "사우샘프턴이 셀틱의 마에다를 추시하고 있다"면서 셀틱이 대체자로 조규성을 원한다고 했다.

셀틱은 마에다와 함께 백업 공격수인 요르기오스 야코마키스도 팀을 떠날 것이 유력하다.

지난 시즌 K리그1 득점왕(17골)인 조규성은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와 2차전에서 멀티골로 주목받았다.

국내는 물론 월드컵에서도 기량을 검증받으면서 유럽 구단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조규성 측은 유럽 진출을 위한 조건으로 돈보다 출전 기회 등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

전북에서 선수 이적을 담당하는 박지성 테크니컬 디렉터와 꾸준히 소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단으로서 이적료를 많이 주는 팀이 좋지만, 조규성이 뛸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다.

유럽의 겨울 이적시장은 1월 말 문을 닫는다. 당분간 조규성을 둘러싼 눈치 싸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중 지도한 빅토르 안, 한국 복귀?...성남시청 코치 지원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을 지도했던 쇼트트랙 전설 빅토르 안(38·한국명 안현수)이 한국 복귀를 추진한다.

10일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빅토르 안은 이달 초까지 진행된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 공개채용에 원서를 접수했다.

이달 3일 서류접수가 마감됐으며 이번 주 중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빅토르 안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3관왕에 등극하며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으로 활약했다.

이후 부침을 겪은 빅토르 안은 2010년 12월 당시 소속팀이었던 성남시청이 빙상팀을 해체하고, 2011년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자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국적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빅토르 안은 2014 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력 강화를 노리던 러시아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아들여 2011년 귀화했다.

그는 러시아 대표팀으로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다. 소치동계올림픽에서 3관왕에 등극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마지막 올림픽 무대로 여겼던 빅토르 안은 러시아 도핑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출전이 불발됐다.

2020년 현역 은퇴를 택한 빅토르 안은 중국 대표팀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술코치로 합류했고, 중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메달 4개(금 2·은 1·동 1)를 따는 데 힘을 더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마친 뒤 빅토르 안은 다른 외국 대표팀의 계약 제안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와 친정팀인 성남시청 코치직에 지원했다.

북런던 дер비 앞둔 손흥민 "아스널 1위? 신경 안 써"

16일 오전 1시30분 아스널과 홈 경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북런던 дер비를 앞둔 손흥민(31·토트넘)이 상대 팀인 아스널의 상승세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는 16일 오전 1시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스널과 2022-2023시즌 EPL 20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영국 런던의 북부 지역에 연고를 둔 두 팀은 리그에서도 가장 치열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 시즌 행보는 엇갈렸다. 토트넘이 부상 악재로 톱4 경쟁에서 밀려나 5위(승점 33·10승3무5패)까지 내려간 사

이 아스널은 선두(승점 44·14승2무1패)를 질주하고 있다.

1위 아스널은 2위 맨체스터 시티(승점 39·12승3무2패)에 승점 5점 앞서 20년 만에 EPL 우승을 노린다.

하지만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라이벌전에서 필승의 의지를 내비쳤다.

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풋볼런던에 따르면 손흥민은 최근 포츠머스(3부리그)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1-0 승)를 마친 뒤 "아스널의 상승세는 솔직히 신경 쓰지 않는다"며 "우리는 지난 아스널과 첫 원정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 몸을 던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지난해 10월 아스널 원정에서 1-3으로 크게 졌다. 수비수 에메르송 로얄

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당시 손흥민도 선발로 나와 후반 27분까지 뛰었지만, 골을 넣지 못했다.

2021-2022시즌 EPL에서 23골로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전반기 골 기록이 4골로 시즌을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안과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는 등 부상까지 겹쳤다.

하지만 지난 5일 크리스탈 팰리스와 정규리그 경기에서 토트넘 4-0 승리에 췌기를 박는 골을 터트리며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EPL에서 4골 2도움을 올리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기록까지 더하면 올 시즌 공식전 6골 2도움이다.

'토트넘 후배' 손흥민, 베일 은퇴에 "앞길 행운 빈다"

베일도 "고마워, 쓰니" 화답

손흥민(31)이 현역 은퇴를 선언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선배 가레스 베일(34)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손흥민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토트넘과 축구의 레전드, 항상적인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것을 축하한다. 앞길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베일과 포옹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에 베일은 "고마워, 쓰니(손흥민 애칭)"라고 답했다.

앞서 베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역 은퇴를 발표했다. 2006년 사우샘프턴(잉글랜드)에서 프로로 데뷔한 베일은 2007년 토트넘 홋스퍼로 이적했다.

토트넘 이적 후 측면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꾼 뒤 세계적인 골잡이로 변신한 그는 2013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로 이적해 전성기를 보냈다.



손흥민(왼쪽)과 가레스 베일

또 웨일스 국가대표로도 A매치 111경기에서 41골을 넣었다.

손흥민과는 2020년 9월 임대로 다시 토트

넘에 돌아온 뒤 한 시즌 동안 한술밥을 먹었다. 당시 손흥민은 베일과 골 세리머니를 함께 하는 등 친분을 자랑했다.

김주형, 골프 세계랭킹 14위 도약...10위 진입 보인다

로리 매킬로이 1위 수성

김주형(21)이 남자 골프 세계랭킹 14위로 올라섰다.

남자 골프 세계랭킹이 10일(한국시간) 발표됐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스코트 셰플러(미국)는 여전히 1, 2위 자리를 지켰다. LIV골프로 이적한 캐머런 스미스(호주)는 3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주형이 가장 높은 순위 이름을 올렸다.

김주형은 지난 8일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84위로 미끄러졌다.

서 공동 5위로 선전한 바 있다.

김주형은 세계랭킹이 15위에서 14위로 한 계단 올라서 톱10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임성재(25)는 19위를 유지했고, 이경훈(32)은 38위에서 36위로 뛰어 올랐다. 김시우(28)는 82위에서